



도시엔 꽃핀 디자인 문화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 2025

역사적인 예술 컬렉션의 보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창의적인 디자인 축제가 더해졌다. 올해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Madrid Design Festival)>은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콘퍼런스, 영감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끄는 다양한 전시와 워크숍을 통해 시대의 이슈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조명했다.

에디터 구민정
사진 제공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 각 브랜드, 구민정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은 도시 곳곳에서 그래픽, 디지털, 패션, 제품, 산업, 조명, 건축 등 모든 분야의 디자인을 아울렀다. 2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 다양한 전시가 열렸고,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대중에게 개방했다. 스페인의 뛰어난 창작자와 글로벌 회사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바우하우스, 포스트모더니즘 등으로 역사를 선구한 베를린의 저력을 선보이는 초청 도시 전시 기획 등 약 200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다시 디자인한 세상(Redesigning the world)’이라는 슬로건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디자인이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프로젝트와 캠페인도 펼쳤다. 이로써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산업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공예, 도시 계획을 비롯한 공공 분야와 서비스, 사회 시스템까지 변화를 선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범주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2월 1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의 흐름을 살피고 배우는 워크숍과 콘퍼런스 등을 진행했다. 마드리드는 해를 거듭하며 스스로 디자인해나가는 도시로 변모 중이다.



폭넓은 디자인 스펙트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포용한 전시와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은 늘 새로운 영감을 준다. 예술과 과학 인재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19세기에 설립된 인스티투시온 리브레 데 Enseñanza(Institución Libre de Enseñanza)는 열흘간 <피에스타 디자인(Fiesta Design)>의 여러 전시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했다.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모든 강의실과 복도는 한 번에 심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협업으로 탄생한 설치물과 작품으로 빼곡하게 채웠다.

2024년 스페인 국가 디자인상을 받은 가구 브랜드 산칼(Sancai)과 2022년 수상자인 인마 베르무데스 스튜디오(Inma Bermúdez Studio)가 만나 핀사(Finsa)의 목재에 디지털 패턴을 입히는 기술로 하이브리드 공간을 위한 책상과 스톨을 선보였다. 무트 디자인(MUT Design)은 천연 미네랄워터 회사인 솔란 데 카브라스(Solán de Cabras)와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물의 여정을 살펴보는 체험관을 만들었고, 미니(MINI)는 래디언트 라이트 아트 스튜디오(Radiante Light Art Studio)와 함께 레이저 빔이 반사각을 통해 내부 표면에 무한 반사되는 기술을 적용한 반응형 작품 <번개지도학(Cartografía del rayo)>을 발표했다. IED 마드리드 디자인 학교(Istituto Europeo di Design)의 엘레나 로카베르트(Elena Rocabert)와 라켈 부즈(Raquel Buj)는 눈에 띄지 않는 군사체가 식물, 곤충, 박테리아 등과 공생 관계를 맺고 생태계를 이루는 것에 착안해 생체 재료를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내 정원의 구멍(Un agujero en mi jardín)> 설치물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노르테 호벤(Norte Joven) 협회의 도움을 받아 배관공, 목수, 전기공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들이 테투안(Tetuán) 지역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대안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다. 작업장에서 사용했던 익숙한 자재가 센터피스와 입체 조명 등으로 탄생했고, <인재 육성을 위한 만남> 전시는 물론 피에스타 디자인 오프닝 행사 케이터링에도 적용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장인들의 마야 토착 직물 자수와 점토 자기를 소개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한 과테말라 특별관과 초청 도시인 베를린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장인 정신과 진보한 기술과 혁신이 결합한 폭넓은 세계를 보여줬다.



- 1 카를로스 코로나스(Carlos Coronas)의 컬러 형광등으로 만든 다각형 설치물, 버려진 헤드라이트를 활용한 후안 푸엔테스(Juan Fuentes)의 디지털 작품 등 빛을 다양하게 표현한 70여 점의 창작물을 만나볼 수 있었던 <꿈꾸는 선(La Línea Sueña)> 전시.
- 2 마야 문화의 중심지인 과테말라 티칼(Tikal) 지역의 재규어 사원을 전통 직물로 표현한 설치물.
- 3 배관공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디자이너의 멘토링을 받아 파이프로 디자인한 케이터링용 센터피스.
- 4 무트 디자인의 두 디자이너 알베르토 산체스(Alberto Sánchez)와 에두아르도 비알론(Eduardo Villalón)은 연잎이 물을 밀어내는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돌에 물방울이 맺히는 작품을 선보였다.
- 5 베를린 시노그래피 전시에서 선보인 곤살레스 하제 AAS(Gonzalez Haase AAS) 스튜디오의 기후 의자(Climate Chair).



- 1 카예혼 산체스 파체코의 크루 디자이너 알리시아 에스태파니아(Alicia Estefanía)는 폐형광등과 나무 조각을 재활용해 만든 이동형 조명인 파로 램프(Palo Lamp)를 소개했다.
- 2 인마 베르무데스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책상과 스톨을 결합한 가구에 산칼의 화려한 패턴을 핀사의 프린팅 기술로 입혀 선보인 미어캣 파티(Suricata Party) 전시장.

창의적인 도시 여행법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오프(Festival OFF)> 프로그램으로 마드리드에서 눈여겨볼 추천 장소들을 지도로 보내고,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창작 스튜디오들이 모여 있는 프로스페리다드(Prosperidad), 카라반첼(Carabanchel), 테투안 지역에서는 3일간의 오픈 스튜디오 루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총 30개 이상의 스튜디오와 50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건축, 가구, 그래픽, 조명, 세라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시, 큐레이터의 강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스페리다드 지역의 건축 스튜디오 모네오 브로크(Moneo Brock)의 투비 스페이스 투 비(2B space to be)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 디자이너 6인의 대표작을 소개한 <여성 X 여성: 변화하는 디자인(MujerXMujer: Design in Transition)> 전시를 진행했다. 큐레이터의 투어는 물론 도자기 브랜드 아드로(Lladró)와 러그 브랜드 간(GAN)을 이끄는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에베스 콘트레라스(Nieves Contreras)와 알레한드라 간디아-블라스코(Alejandra Gandía-Blasco)를 초대해 리더십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다. 자동차 수리, 공장이 즐비했던 골목을 코워킹 아트 스튜디오 겸 상점, 작업실로 변신시킨 카예혼 산체스 파체코(Callejón Sánchez Pacheco)에서는 버려진 전구와 나무 자재를 활용한 조명, 낡은 시계로 만든 주얼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산업 단지에서 조금씩 변화 중인 테투안 지역은 섬유 및 주얼리, 도자기 공예, 가구 및 소품, 그래픽 디자인 등 테마별로 나눈 루트를 제안했다. 산업 디자이너 페드로 세리솔라(Pedro Cerisola)는 사물 디자인에 기하학을 적용해 작은 조각들로 조명과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해 주목을 받았고, 에스파시오 에스케헤(Espacio Esqueje)에서는 거리 예술을 떠올리는 스프레이와 콘크리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두 아티스트의 실험 과정을 공개했다.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건축 자재 창고를 이틀간 빌려 지속 가능한 소재로 완성한 조명을 모아 전시한 쿠티릭스갤러리(KUTRIXgallery)의 실험적인 시도도 돋보였다.



- 3 오래된 시계, 보석, 골동품 등을 재활용해 수작업으로 장신구로 만드는 투비 컨티뉴드(TO BE continued)의 아틀리에.
- 4 6인의 여성 디자이너가 이케이(KEA), 데파도바(De Padova), 무지(MUJI)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을 전시하고 갤러리 투어와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투비 스페이스 투 비.
- 5 콘크리트, 시멘트, 공사장에 버려진 철제 골조 등 실험적인 소재로 작업을 하는 팔로(Palo)와 아세 토랄바(Ase Torralba)는 작업장이자 갤러린 에스파시오 에스케헤를 개방했다.
- 6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 로고를 부착하고 모두를 환영한 건축 스튜디오 모네오 브로크.
- 7 페드로 세리솔라는 테투안 지역 작업실에서 도형 디자인, 샘플 테스트부터 조립과 운반이 쉬운 테이블로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 8 '황폐한 공간을 비추는 빛'이라는 주제로 실제 건축 자재 창고를 빌려 여러 디자이너의 조명을 설치한 쿠티릭스갤러리의 +Ke LUZ 팝업 전시.





- 1 톨레도(Toledo)에서 대를 이어 도자기를 만들어온 프란시스코 아구도(Francisco Agudo)는 피에스타 디자인에서 도예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 2 산업화된 올리브 수확 과정에서 계속 나무뿌리들이 버려지는 현실에 맞서 대안을 끊임없이 탐구한 호르헤 페나데스의 프로젝트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업루티드〉 전시.
- 3 스페인 천연 양모로 만든 캡슐 컬렉션과 설치물을 선보이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오로 블랑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 4 엑토르 세라노 회고전에서 발렌시아 대홍수로 피해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 프로젝트인 '뿌리'를 발표하며 선보인 화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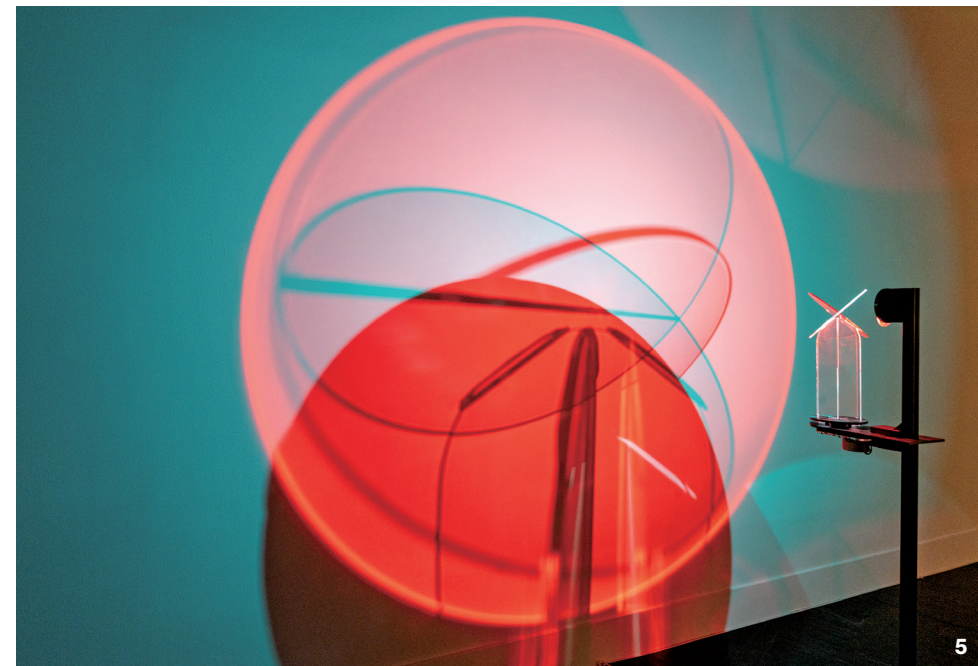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속 가능한 매개

이번 페스티벌은 심미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소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라는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지속 가능성, 전통 소재의 현대적 재해석, 도시 생활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디자인 렌즈로 탐구한 방법들을 보여줬다. 농촌 지역 사회와 장인과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경제 문화적 기둥으로 여겨 금으로 부르기드 했던 천연 양모의 가치를 재고하고, 연관 산업들이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흰색 금'이라는 뜻의 '오로 블랑코(Oro Blanco)'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디자이너 이네스 시스티아가(Inés Sistiaga)와 레히나 데히메네스(Régina Dejiménez)가 1920년부터 양모 가공업에 전념해온 울포라이프(Wool4Life)를 통해 스페인 토종 양에서 얻은 양모를 제공받아 커튼, 스톱, 파우치 등을 만들고, 이 캡슐 컬렉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마존(Amazon)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에스타 디자인에서는 토종 양모 지도와 시청각 자료를 더한 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이니셔티브를 널리 알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1000여 명의 전통 공예 장인을 적극 지원하는 스페인 중부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지방의 프로그램이자 브랜드인 레가도 아르테사노(Legado Artesano)도 축제에 참여했다. 진흙으로 엮는다는 의미의 〈트라마르 엘 바로(Tramar el barro)〉 전시를 준비해 전통 방식의 점토와 유약을 바른 도자기와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작품과 도예 장인의 시연을 선보였다.

디자이너 호르헤 페나데스(Jorge Penadés)는 〈업루티드(Uprooted)〉 전시를 통해 스페인 올리브 생산의 80%가 이루어지는 안달루시아(Andalucía) 지방의 수확 관행이 낡은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다층적으로 살핀 연구 과정을 시각 에세이로 설명하고, 수확 과정에서 버려진 토종 나무뿌리는 웅이와 상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의자, 책장 등 가구로 재탄생시켰다. 2024년 스페인 국립 디자인상(Premios Nacionales de Innovación y Diseño)을 수상한 엑토르 세라노(Héctor Serrano)는 마타데로 마드리드(Matadero Madrid)에서 열린 회고전 〈25년을 이어간 여정(El viaje entremedias. 25 años conectando)〉에서 그동안 발표한 100여 가지의 독창적인 제품을 선정해 선보이고 연대 프로젝트인 '뿌리(Raíces)'를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말 스페인 발렌시아주의 대홍수로 해변까지 떠밀려온 나무줄기, 뿌리, 식물 잔해를 꺾꽂이하기 위해 수집하고, 당시 피해를 입은 85개 지역을 상징해 85개의 화병으로 제작한 것이다. 판매 수익금은 해당 지역의 재건과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친밀하게 손 내민 공간들

여러 브랜드의 쇼룸, 호텔,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도 입구에 축제 로고를 부착해 방문객을 적극 환영했다.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와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디자이너 토크, 컬렉션 소개 등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9세기 지어진 궁전에 자리한 오리 유 부티크 호텔(Only You Boutique Barquillo)의 로비는 20세기 중반 중요한 스페인 건축가로 꼽히는 호세 안토니오 코데르츠(José Antonio Coderch)가 디자인해 70주년을 맞이한 디사(DISA) 조명으로 채워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이 획기적인 조립형 우드 베니어 펜던트 디사 조명을 사용했던 당시의 드로잉과 메시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산칼은 현대 건축 선구자인 안토니오 라멜라(Antonio Lamela)가 1966년에 완성한 스페인 첫 오피스 빌딩 4층에 오픈한 쇼룸인 콜라브(Colab)를 공개했다. 아티스트 루카스 무뇨스 무뇨스(Lucas Muñoz Muñoz)가 자원의 순환을 고려해 원래 있던 재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조립하는 실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완성한 곳이다. 컬러풀하고 화이트 있는 산칼의 가구와 어우러진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공간을 리모델링한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했다. 간디아 블라스코(Gandia Blasco) 그룹 플래그십 스토어는 텍스타일 디자이너 샤를로트 랑슬로(Charlotte Lancelot)가 수작업으로 제작한 간(GAN)의 태피스트리를 비롯해 지중해 문화를 내재한 감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티스트와 장인 19인의 작품으로 〈커넥션(Connection)〉 전시를 열었다. 욕실 자재 기업 로카(Roca)의 마드리드 갤러리에서는 진흙이 도자기로 완성되는 온도를 색채로 표현한 3D 인쇄 블록 1200개를 쌓은 마리오 쿠치넬라(Mario Cucinella)의 설치물, 세라믹 회사인 네올리스(Neolith) 쇼룸에서는 비주얼 아티스트 이리아 마르티네스(Iria Martínez)가 석자재 샘플들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페르난 고메즈 빌라 문화센터(Fernán Gómez Centro Cultural de la Villa)에서는 대지 예술가 하비에르 리에라(Javier Riera)가 디자이너 45인의 실내 조명, 제품 디자인, 설치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표현한 창작물을 큐레이팅한 〈꿈꾸는 선(La Línea Sueña)〉 전시를 무료 개방했다. 엑토르 세라노가 조명 회사 파로 바르셀로나(Faro Barcelona)와 생분해성 식물성 소재로 제작한 지구, 바다, 그리고 공기(Earth, Sea and Air) 조명, 알바로 카탈란 데 오콘(Álvaro Catalán de Ocón)이 가나의 북부 불가탕가 지역의 장인들과 협업해 재활용 플라스틱병과 코끼리풀로 만든 PET 램프 등 70여 점을 한데 모아 방문객을 매료시켰다.



- 5 컬러의 움직임에 더해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아티스트 막시밀리아노 모로(Massimiliano Moro)의 〈붉은 메아리(Red Echoes)〉.
- 6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엑토르 세라노가 디자인한 파로 바르셀로나의 지구, 바다, 그리고 공기 시리즈 조명은 불필요한 재료,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3D 프린트로 제작했다.
- 7 욕실을 위한 중요 자재인 점토와 재활용 세라믹을 조합해 3D 프린트로 1200개의 블록을 만들고 쌓은 마리오 쿠치넬라의 〈스파클링 체인지(Sparkling Change)〉는 로카 마드리드 갤러리의 쇼윈도를 장식했다.





1



2



3



4

- 1 1924년부터 사랑받아온 디사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호세 안토니오 코데르츠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전시를 준비한 온리 유 부티크 호텔.
- 2 멕시코 디자이너 니라 트로이세(Nyra Troyce)와 함께 중앙아메리카의 전통 직조 기술을 연구해 유니크한 밀파(MILPA) 컬렉션을 선보인 간세도 쇼룸.
- 3 사를로트 랑슬로가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간(GAN)의 온다(Onda) 태피스트리와 도예가 파트리시아 바레아 밀란(Patricia Varea Milán)의 본탄(Bontane) 자기를 간디아 블라스코의 소파, 테이블과 매칭했다.
- 4 이리아 마르티네스와 협업한 작품을 갖추고 갤러리로 개방한 네올리스 쇼룸.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 2025 디렉터 알바로 마티아스(Álvaro Matías) 인터뷰

다른 디자인 페스티벌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스페인 내 굵직한 영화, 사진, 예술 전방위 행사를 이끄는 라 파브리카(La Fábrica)라는 문화 매니지먼트 회사와 여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광범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페스티벌과는 달리 대중이 전방위적인 프로그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달 이상 길게 진행되는 것도 큰 특징이죠. 그중 일주일은 영국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Paul Smith),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쿠키넬라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과 교류를 이어가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인 '마드리드 디자인 PRO'를 운영합니다.

슬로건을 '다시 디자인한 세상'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축제의 주인공인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노고로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은 일상생활 속 사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축제를 통해 협력 기관, 브랜드와 연대를 강화해서 더욱 생산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스페인 양모 산업이 쇠퇴하는 현실을 알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위해 연대를 만드는 '오로 블랑코' 이니셔티브와 직업 훈련과 취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인재 육성을 위한 만남(Viveros. Punto de Encuentro)> 전시를 추천합니다. 진보를 이끄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 사회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도시 속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미니 디자인 어워드(Mini Design Award)'를 다섯 해째 함께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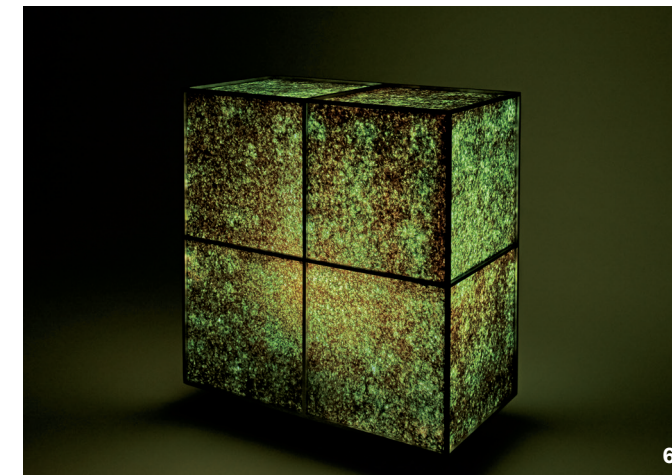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만남과 대화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더욱 유익한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초청 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시아 디자이너들과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인 위플러스(we+)를 초청해 도시 폐기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재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호 성장하는 디자인 네트워크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5

- 5 마드리드 디자인 페스티벌 2025 디렉터인 알바로 마티아스.
- 6 기후 변화로 훼손돼 버려진 김을 조명으로 제작한 위플러스의 <레스, 라이트, 로컬(Less, Light, Local)> 프로젝트.
- 7 140명 이상의 디자이너, 전문가가 참여한 피에스타 디자인의 전시와 워크숍에는 2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6



7